

강국념원을 꽃피우는 탁월한 령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 시어 공화국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시고 강국건설의 전환적 측면을 열어놓으시는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로 인민군대의 통성변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 마련하시었다.

오늘 공화국이 세계에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나라의 군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전체 인민을 승리와 기적창조로 불러일으킨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천만갈래로 얽힌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백승의 지략과 묘술을 제시하시고 력속적인 공격전으로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사전제압하시며 무전무혈의 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을 지니신 군사적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며 인민군대를 주제전법을 체득하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실전능력을 소유한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모소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인민군대의 강화군화를 실현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군사적 령도에 의하여 모든 군중, 병종, 전문부대들이 정예의 전투대로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지난 3월에 있는 조선인민군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에서 보여준 인민군군인들의 높은 포사격술도 공화국군대의 전투력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국방공업 자제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군대를 첨단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나라와 인민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의 진두에 서시어 국방과학연구기관들과 위협천만한 시험장들을 찾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 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신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신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세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드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고 수령님들의 평생의 사랑을 다 합쳐 인민의 념원과 꿈을 모두 이루어놓으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세월을 앞당기는 경이적인 비약과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문명창조의 빛나는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느냐.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 걸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 싶었던 일이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런분 이시다.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류경치과병원, 룡라인민유원지, 미래상점,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룡양산생물공장, 금산포켓갈가공공장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이 이런 이유, 이런 기준에 의하여 건설된 인민의 향유물, 나라의 재부들이다.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되어온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그이께서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닥친다 해도 두려움없이 그를 따라가는 인민들이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민현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의 자욱이 려력히 새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불면불욕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현지도로 날과 달을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커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희악의 역경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인민의 령도의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창한 전변의 기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어 말할로 벅찬 기적이시며 그이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여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기어 이럴때세우려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은 나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측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와 위인적품모에서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보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되어온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그이께서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닥친다 해도 두려움없이 그를 따라가는 인민들이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민현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의 자욱이 려력히 새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불면불욕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현지도로 날과 달을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커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희악의 역경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인민의 령도의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창한 전변의 기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어 말할로 벅찬 기적이시며 그이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여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기어 이럴때세우려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은 나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측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와 위인적품모에서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보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되어온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그이께서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닥친다 해도 두려움없이 그를 따라가는 인민들이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민현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의 자욱이 려력히 새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불면불욕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현지도로 날과 달을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커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희악의 역경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인민의 령도의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창한 전변의 기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어 말할로 벅찬 기적이시며 그이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여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기어 이럴때세우려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은 나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측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와 위인적품모에서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애국의 평년발달에 받들어

지난해 공화국에서 기록된 이 자랑스런 성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쳐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의 강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야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공화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흘러가는 공화국의 려사에 또 하나의 감동같은 화폭으로 새겨진 평양종합병원건설착공식.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원칙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머치고 실행하여야 할 최우선무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는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아무리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인민들에게 기여이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받들어 공화국인민들은 창조와 건설의 대전에서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매화와 흙모

오직 수령님들의 뜻대로

은갖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화창한 4월이다.

이 계절이 오면 온 나라 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끝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굽을 적신다. 그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고걸으신던 사회주의수호와 조국번영의 길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너무도 눈에 익은 달긴옷을 입으시고, 때로는 수수한 농림복을 스스럼없이 쓰시고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는 어창에도 들리시고 험한 농장길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는 때면 꼭 기다린 수령님들을 뵈옵는것만 같아 그리움의 눈물을 터치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어찌 해빛같이 따사로운 환한신 그 모습뿐이라.

경애하는 원수님은 사상과 신념으로 보나, 담력과 배짱으로 보나, 인민을 위하는 뜨거움 덕망으로 보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위인이시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주제100(2011)년 12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평생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현신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치시어 그이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추억하시었다.

숭엄한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평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서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시어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하시었다.

이른바 려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둔 그날에는 일군들에게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 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은 어디서 어떤 바람

이 불어오고 그 어떤 곤란이 들이닥쳐도 절대로 굽어들지 않고 오직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로만 역사계 전진하고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해놓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 생각을 먼저 하신다.

몇해전 그이께서 완공된 어느 한 육종장을 현지도 하시 때였다.

그날 육종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육종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라의 재부가 하나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언제나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명울로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하시었다.

인민이 아니다. 려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둔 그날에는 일군들에게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 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은 어디서 어떤 바람

철하러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처럼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을 새겨안으시고 인민사랑의 현지도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현대화된 공장을 찾으시어 수도, 농장길을 걸으시면서, 아지가 휘도록 열매가 주렁진 사과나무를 보시면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시고 머니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보시려는가.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평양시안에서도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 것을 아시던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 것이라고 하시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민족 자주위업의 한길만을 즐기 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의 자주적존엄과 삶은 빛나고 인민이 만복을 누릴 찬란한 그날도 기여이 앞당겨져오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길에서 ◎

매 요소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주제104(2015)년 10월 어느날 김동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객차안으로 들어서시면서 문득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시었다.

바닥에는 매끈한 합성수지를 깔았는데 그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객차의 바닥에는 매끈해

잡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손잡이가 잔뜩잔뜩하다고 하시면서 손잡이대에 고무나 가죽 같은것을 씌워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개별손잡이를 드리워놓아야 한다고 이리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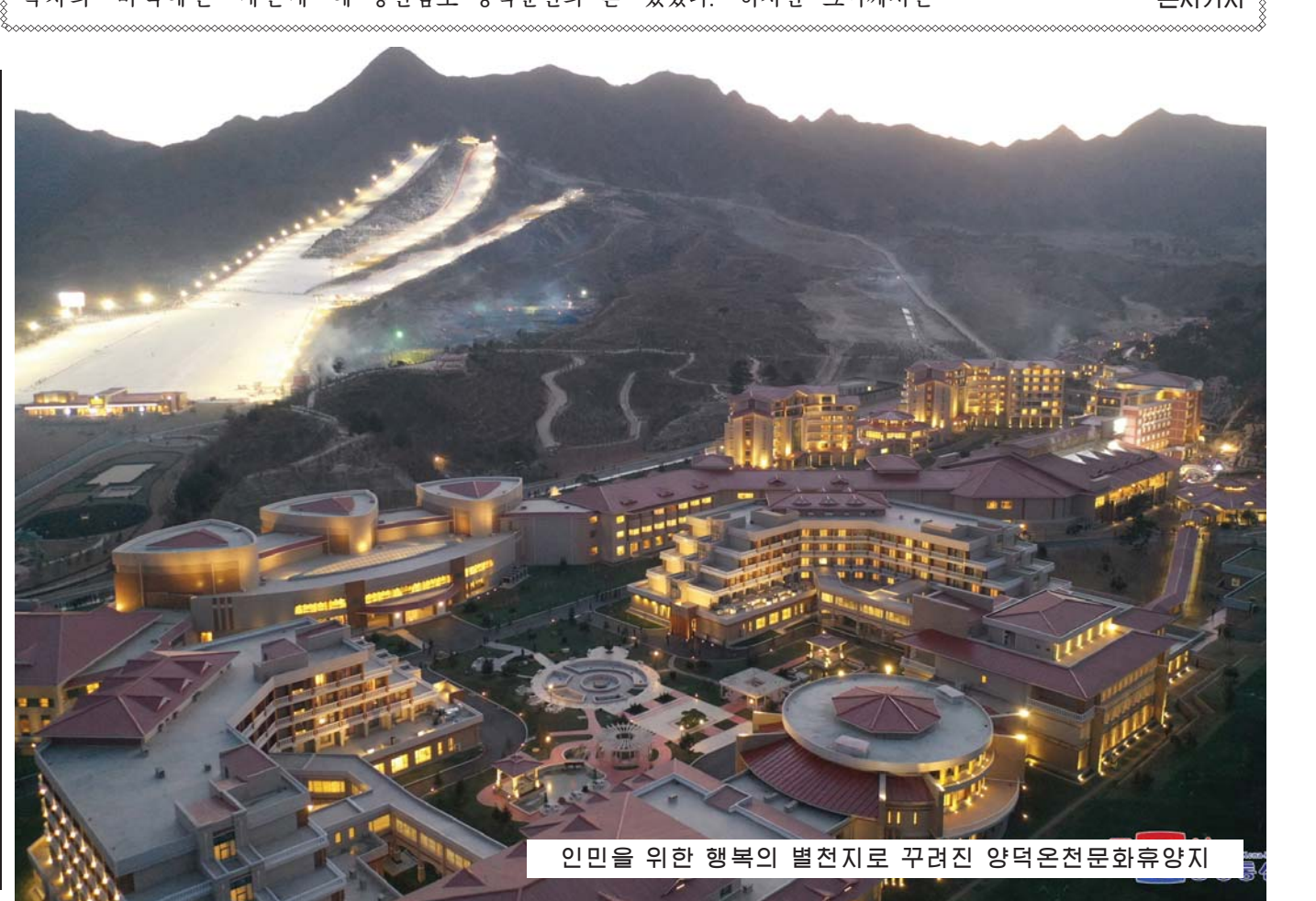
역수로 내리는 비를 맞으시며

주제107(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시던 끝에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이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어디를 돌아보시면서 모든것을 료해하시고 해당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매출기같은 비속에서도 양덕군 온천리일대의 온천굴들을 돌아보시려 뉘뉘 산발들과 험한 평경을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도가 80°C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팔팔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며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시듯, 쌓인 피로가 다 가셔 지신듯 환하게 웃으시었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별천지로 꾸려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